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의 성과와 한계, 과제

안창시·진제성 엮음,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을 읽고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근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효과이기도 하겠지만, 과거 월남전(베트남전쟁)과 발리, 세부, 푸켓과 같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던 동남아시아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들과의 교역량은 이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지게 되었고, 베트남에 4,000여 개, 인도네시아에 2,0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동티모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인 아세안(ASEAN)은 인구 6억 5,000만 명으로 인구 5억 명 남짓인 유럽연합(EU)보다 규모가 크며, 경제성장률 연평균 5% 정도를 꾸준히 기록하여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조 달러를 넘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한국 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더구나 2018년 6월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곳도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였고, 2019년 2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곳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어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이 지역에 집중되었다. 동남아시아는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할 만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 된 것이다. 관광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동남아시아는 실로 뜨거운 지역,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한국의 학자(한국인 학자와 한국에서 연구한 외국인 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얼마나 많이 제공해 왔을까?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학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을까? 이 지역 연구 동향이나 풍토에 있어서 어떤 점이 아쉽고,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 안청시와 전제성이 엮은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안청시, 전제성을 포함하여 이 책 집필에 참여한 10명의 학자들은 한국 학계에서 동남아시아 각국과 아세안 연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및 라오스, 아세안으로 장(chapter)을 나누어 각각에 관하여 위에 제시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또한 책의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에서는 동남아 학계 전반의 형성과 발전 과정 및 한계와 과제를 제시한다.

아래에서는 책의 주제를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의 성과와 한계, 과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에 관하여 책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성과

책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동남아시아와 관련한 학위 논문이 나온 것이 1950년이라니(329쪽),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동티모르와 아세안까지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관련 국내 학위 논문 수는 3,000편을 훌쩍 넘고 국내 학술지 논문 수는 6,000여 편에 이른다(335쪽).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는데, 동남아시아 관련 석사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 논문도,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학술 단행본도 상당수 출판되었고, 1991년에는 한국동남아학회가 창립되어 2020년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 법학, 이학, 공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의 300명이 넘는 동남아시아 관련 학자들에게 소통과 협업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1. 양적 성장

한국 동남아시아 연구의 역사가 70년에 이른다 하지만 사실 1990년대 초까지는 연구 성과가 미미하였다. 2010년 이후 연간 100편이 넘는 학술지 논문이 출판되는 등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생산되는 베트남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90년대 초까지는 베트남 관련 학위 논문 수가 연간 10편 이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연간 25편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6년부터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2년에는 186편에 이르렀다(74쪽). 베트남 관련 학술지 논문 수도 1990년대 초까지는 연간 10편 이하였으나, 1990년대 중후반 연간 40편까지 증가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연간 70편으로, 2010~2012년에는 연간 100~120편, 2015년에는 150편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76-77쪽).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의 경우, 베트남 관련 논문 보다 수는 적더라도 1990년대 중반부터 논문 수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하는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이 과거 인적 교류가 어려웠던 국가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1990년대부터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질적 성장

양적인 성장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크게 성장했다. 우선 동남아시아 관련 전공 학자들이 대학원생 논문을 지도하게 되면서 석사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350편 정도의 동남아시아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이 국내에서 생산되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학술지 논문뿐만 아니라 책을 저술하여 240편 정도의 동남아시아 관련 학술 단행본이 국내에서 출판되었다(335쪽).

우수한 연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연구에 관한 의견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은 1991년 6월 29일에 한국동남아학회(이하 학회)를 결성하였고, 2017년 현재 다양한 전공의 333명의 연구자들이 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14쪽). 또

한 학회는 1992년 학술지로 『동남아시아연구』를 창간하여 2015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76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15쪽).

한편 미국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귀국한 5명의 학자들이 1990년에 결성한 동남아정치연구회는 2년 후 경제학, 역사학, 인류학 등 다른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는 동남아지역연구회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는 2004년에 이르러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동남아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성장하였다. 연구소는 특히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대학원생들을 연구회원으로 모집하여 자율적인 세미나와 현지연수를 지원해 왔다(9-10쪽). 이렇게 성장한 후속세대는 오늘날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3. 평가

책에서는 한국 동남아시아 연구의 양적, 질적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학회와 연구소 창설 등 학계 조직화와 후학 양성에 힘을 쏟은 선배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의를 표하고 있다(18-19쪽). 물론 동의하지만 학자들의 헌신만으로는 한국의 동남아시아 관련 연구가 최근 들어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학회나 연구소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연구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관련 학술지 논문들 가운데 싱가포르에 관한 논문 수가 베트남 다음으로 많은데, 학회나 연구소에서 싱가포르 전문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책의 필자도 이 사실을 무척 놀라워하고 있다(334쪽).

학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배 학자들이 연구와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면,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과 관련한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구체적으로 과거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했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1990년대 중후반 아세안에 가입하면서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태국발 아시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

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과 투자가 활발해졌으며, 이 시기부터 한국의 동남아시아 관련 논문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는 2011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에 상주대표부를 설립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주아세안대표부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이르러서는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천명하며 아세안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 4강과 같은 지위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990년 만들어진 한-아세안협력기금(ASEAN-Korea Cooperation Fund, 이하 기금) 역시 크게 증가했다. 1990년 연간 100만 달러 규모에서 출발한 기금은 2004년 300만 달러로 14년 만에 세 배 늘었는데, 두 번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2014년 700만 달러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2019년부터는 연간 1,400만 달러로 5년 만에 다시 두 배가 늘어났다(ASEAN 칼럼, 2020). 더 많은 기금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더 많은 협력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학문은 대중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발전하기 마련이며, 결국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도 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짐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해 왔다. 아세안 국가들은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키며 통합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을 약속했다. 특히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와 더불어 아세안공동체 세 개의 축(pillar) 중 하나인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는 아세안 단일 시장 건설을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과 한·중·일 세 나라가 참여하는 아세안+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에서 아세안의 정치적 중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 지역과 관련된 연구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II. 한계

지난 15년간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앞으로 전망도 밝지만, 책의 저자들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출신 동남아시아 연구자들과 비(非)외대 출신 간의 분리 양상이다. 언어와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외대 출신 학자들과 비교적 최근에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관련 연구를 하기 시작한 비외대 출신 학자들 간의 학술 교류가 미미한 상황인 것이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점은 동남아시아에 관한 연구가 인문·사회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이·공학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연구의 양은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이 전문 학술지 논문이기 때문에 정작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대중서(단행본)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책의 저자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관련 학위 논문 대부분이 석사 논문이고 박사 논문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개별 국가 연구가 대부분이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비교 연구나 동남아시아와 다른 지역 간 비교 연구도 부족하다.

1. 분리와 단절

김형준, 전제성이 쓴 제2장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와 김홍구, 이미지가 쓴 제4장 “한국의 태국 연구”에서는 외대 출신 학자들과 비외대 출신 학자들 간의 분열과 단절 현상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어학과 문학 중심 연구를 하는 외대 출신 동남아 학자들과 사회과학 중심의 비외대 출신 동남아 학자들이 함께하는 학술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는 국내 주요 학술지로 외대 동남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동남아연구』와 (한국동남아)학회에서 발간하는 『동남아시아연구』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연구자의 경우, 『동남아연구』

구』와 『동남아시아연구』 둘 중 하나의 학술지에만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가 49명인데 비해, 두 학술지 모두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6명에 불과한데, 이는 거의 모든 외대 출신 연구자는 『동남아연구』에만 논문을 게재하고, 거의 모든 비외대 출신 연구자는 『동남아시아연구』에만 논문을 게재한 결과다(49쪽). 태국 연구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태국 관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전체 85편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73편의 논문 저자는 외대 출신이었다(162쪽).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태국 관련 논문 56편의 저자 가운데 외대 출신은 48%에 머물렀다(163쪽). 인도네시아 연구자에 대해서 편중 현상이 덜하게 보이지만 비외대 출신은 『동남아연구』에 논문을 거의 게재하지 않는 경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두 학술지 간의 분리 현상은 게재된 논문이 다른 연구를 인용한 빈도를 살펴보면 더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 103편 중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문헌에 포함한 논문은 4편에 불과하다(50쪽). 더욱 극적인 예로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 63편 중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문헌에 포함한 논문은 단 1편도 없다. 비외대 출신 연구자는 외대 출신 연구자들이 대부분의 논문을 게재하는 『동남아연구』를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가 대부분인 비외대 출신 동남아시아 학자들이 언어와 문학 관련 논문이 대부분인 『동남아연구』를 참고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는 있다. 그런데 『동남아연구』 게재 논문 중 태국 관련 논문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9편의 논문 중 언어·문학 분야 논문은 53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 역사 등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되는 논문들이 주로 다루는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논문들이다(158쪽). 그룹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태국 관련 논문들 중 『동남아연구』 게재 논문을 인용한 비율은 1.3%에 그쳤다(165쪽). 『동남아시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는 비외대 출신 학자들은 같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라 할지라도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출신 학교에 따라 분리되고 단절된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은 학계의 어느 한쪽에서만 인정을 받는 반쪽짜리 연구자에 머물게 된다. 또한 어느 한쪽 출

신 연구자의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학술지 역시 반쪽짜리 학술지 처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와 문학 등 인문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외대 출신 학자들과 사회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비외대 출신 학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한국의 동남아시아 학계가 능력치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문·사회계 편중

이 책 저자들이 거의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동남아시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문·사회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1950년에 동남아시아에 관한 한국 최초의 학위 논문이 나온 필리핀 연구를 예로 들면, 2016년까지 한국에서 나온 202편의 필리핀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가운데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이공계 연구 논문은 23편에 불과하다(185쪽). 학술지 논문도 마찬가지로 총 409편의 필리핀 관련 논문 가운데 이공계 논문은 52편에 그친다(190쪽).

필리핀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미얀마 연구의 경우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미얀마에 관한 학위 논문 49편 가운데 이공계 논문은 단 1편도 없다(251쪽). 1960년부터 2017년까지 출판된 미얀마 관련 학술지 논문 212편 가운데에서 이공계 논문은 6편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254-255쪽).

의학, 식품, 건축, 환경, 산림, 해양 등 이공계 역시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필리핀과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그러한 이공계 분야 연구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만 치중된 한국의 동남아시아 학계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3. 학술지 논문 편중

동남아시아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전문 학술지 논문이 대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단행본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1959년 조효원의 베트남에 관한 논문에서부터 2016~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는 6,000여 편에 이르지만 국내에서 출판된 학술 단행본은 249편

에 불과하다(328쪽, 335쪽).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가 급증하게 된 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상기할 때,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이 학술지 논문만 주로 쓰고 대중이 원하는 책을 거의 저술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4. 석사 논문 편중

동남아시아를 교육할 수 있는 전공 학자와 이 지역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 전공자 수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보여 주는 지표로서 2016~2018년까지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관련한 학위 논문 수는 3,400편을 넘어섰다(335쪽). 하지만 그 대부분이 석사 학위 논문이고 박사 학위 논문은 전체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거의 모든 전공에서 석사 졸업생이 박사 졸업생보다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낮은 비율이 아닐 수도 있지만, 2019년 현재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박사 비율이 15.7%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중도일보』, 2019), 동남아시아 전공자 중에서는 박사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원에서 동남아시아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학자가 되어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려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학자가 되려는 대학원생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대학과 연구소에 동남아시아 전문가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전문가에 대한 사회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5. 단일 사례 연구 편중

동남아시아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문은 특정한 하나의 국가(사례)에 한정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비교 연구는 따로 분류하여 집계하지 않

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 간 비교 연구(박희주, 1964)라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국가 연구로 각각 하나씩 추가시켰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정당체제를 비교 분석한 연구(신재혁, 2015)와 같이 이 지역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불분명하다.

문제는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단일 사례 연구에 못지않게 비교 연구가 중요하다라는 점이다. 정치학이나 경제학 등 사회과학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일이다. 그리고 설명하려는 인과관계가 특정 국가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연구가 큰 도움이 된다(신재혁, 2019).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나 유럽동남아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n Studies, EuroSEAS)와 같은 해외 지역 연구 학회의 경우, 회원 신청을 받거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국가별 연구 외에도 국가 간 비교 연구를 독립된 범주(category)로 분류한다.

단일 사례 연구에만 전념할 경우, 관심을 두는 특정 현상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그 사실 관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현상이 초래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비교 연구를 거의 하지 않는 한국의 동남아시아 학계 역시 그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III. 과제

앞서 정리한 한국 동남아시아 연구의 다섯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서에 따라 다음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1. 소통과 협업

외대 출신과 비외대 출신 동남아시아 연구자 간의 분리와 단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진영 간의 소통과 협업이 장려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회의 연례학술대회에서 외대 출신과 비외대 출신이 함께 패널을 신청하도록 유도

하고, 『동남아연구』와 『동남아시아연구』 간의 분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외대 출신 연구자가 『동남아연구』에 외대 출신 연구자가 『동남아시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대체로 비외대 출신 연구자의 『동남아연구』 기피 현상이 외대 출신의 『동남아시아연구』 기피 현상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비외대 출신 연구자가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고 그곳에 논문을 적극적으로 투고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국 연구의 예에서 보듯이 『동남아연구』에 사회과학 분야 논문도 상당수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이공계 비중 증대

인문·사회계 연구에 편중된 동남아시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계 내에 이공계 연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이공계 연구 비중이 높은 편인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672편의 국내 학술지 논문 가운데 산림, 지질, 식품, 의학, 건축, 환경 등 이공계 논문이 15.5%를 차지하고 있고(40쪽), 캄보디아는 257편의 석사학위 논문 중 기술과 공학, 임업, 농업, 축산, 보건 등 이공계 비중이 33.5%나 된다(269쪽).

이러한 연구 주제는 대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이공계 학생과 학자들이 동남아시아와 관련한 사업이나 연구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면 이공계 비중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학생들을 한국 대학원으로 적극 유치하고 이들이 인문·사회계뿐만 아니라 이공계에도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정책도 학교 측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3. 단행본 장려

동남아시아 학자들이 학술지 논문 작성에 치중하고 단행본 저술에 소홀하여 높아진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학자들에게

요구하는 연구 업적 기준이 높아졌는데 단행본에 대해 인정하는 연구 업적 점수가 학술지 논문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또 대학이 그러한 평가 체계를 갖춘 이유는 교육부와 언론에서 각종 평가를 진행할 때 단행본에 비해 학술지 논문을 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자들에게 단행본 저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들어 단행본을 보다 우대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할 것을 정부와 언론에 요구해야 한다. 그들의 평가 방식이 변경된다면 대학 내의 평가 체계도 단행본에 대한 업적 점수를 높이는 쪽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에 따라 학자들의 단행본 저술도 늘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박사 비중 확대

학문 후속세대를 충분하게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에서 박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는 동남아시아 학자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대외 부산외대 이외의 대학에서는 동남아시아 관련 학과가 거의 없고(전제성 외, 2020), 동남아시아 전문가가 취업할 수 있는 연구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이 석사에 이어 박사까지 도전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부가 모든 국립대에 동남아시아 관련 학과를 설립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수요가 높지 않은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관련 학과가 모든 국립대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이다.

5. 비교 연구 강화

끝으로 단일 사례 연구에 치중된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동향에서 탈피하여 비교 연구를 권장해야 한다. 다음에 이와 같은 책을 기획할 때, 지역 내 국가 간 비교나 동남아시아와 다른 지역 간 비교 논문들을 독립된 범주로 집계하여 비교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학회에서 회원을 연구 관심 분

야에 따라 분류할 때에도 비교 연구 분야를 추가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비교 연구 패널을 확대해야 한다.

투고일: 2020년 7월 6일 | 게재확정일: 2020년 7월 27일

참고문헌

- 박희주. 1964. “동남아세아 정치집단의 역할: 버마, 인도네시아, 월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재혁. 2015. “동남아시아 신생민주주의 정당체제 비교 연구: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파편성.” 『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 1-30.
- _____. 2019. “싱가포르는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한 지역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9권 2호, 161-191.
- 전제성·김현경·박사명. 2020. “한국 대학의 동남아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이슈페이퍼 4. https://wz3.jbnu.ac.kr/CrossEditor/binary/files/00001/%EC%9D%B4%EC%8A%88%ED%8E%98%EC%9D%B4%ED%8D%BC_Vol4_20200624_1500.pdf(검색일: 2020. 7. 4).
- 『중도일보』, 2019. 9. 14. “대학생 줄어들지만 석·박사 취득자 증가세.” <http://m.joongdo.co.kr/view.php?key=20190914010005484>(검색일: 2020. 7. 3).
- ASEAN 칼럼. 2020. “30년 공든탑 ‘한-아세안 협력기금’ 빛나는 성과.” *ASEAN EXPRESS* 2020년 5월 22일자. <https://aseanexpress.co.kr/mobile/article.html?no=4059>(검색일: 2020. 7. 2).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검색일: 2020. 7. 1).

